

80年代의 石油需給安定化方案

尹 萬 鎬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I. 世界石油市場展望

1. 世界石油市場의 變化

世界石油市場은 1960年代만 하더라도 中東 및 아프리카地域에서 大油田의 발견이 계속되어 供給量過剩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原油價格 또한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産油國들은 價格카르텔인 OPEC을 결성하여 原油價를 안정시켰고 産油國의 利益을防禦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年을 頂点으로 하여 世界油田發見量이 격감하였고 여기에 石油主導型 公업화가 世界的으로 進行되어짐에 따라 石油價格은 급등하였으며 産油國은 石油武器化를 선언하여 世界石油市場에서의 그들의 地位를 강화하였다. 특히 1973年末과 1978年末에 각각 야기된 第1, 2次 石油波動으로 油價는 大幅引上 또는 多元化 되었으며 現物市場去來가 成行하기 시작하였고 國際石油資本인 메이저의 地位가 약화되어 各國政府는 産油國과 政府次元의 原油交涉을 개시하였다. 1970年代를 통하여 産油國은 世界石油市場의 主導權을 장악하였고 메이저는 供給能力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消費國들은 적극적인 消費節約, 石油代替에너지이용 및 開發 등을 추진하여 왔다.

第2次 石油波動이 長期化되면서 世界景氣가 沈滯局面에 접어들자 1980年 以後 石油需要는 급속히 감퇴하였다. 이에 따라 原油價格도 現

物市場을 中心으로 下落하기 시작하였으며 國際石油市場은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변모되었다.

이같은 지속적인 石油需要減退와 油價下落壓力으로 OPEC産油國은 1982. 3月以後 最大生産量 設定(1,750萬배럴/日) 및 産油國別 쿼터制 實施 등을 통하여 原油價下落防止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産油國間의 利害相衝에 따른 結束不安과 이란·이라크의 增産, 그리고 産油國의 開發投資를 위한 石油收入代錢所要로 産油國은 生産持續이 불가피하여 原油價格은 1982年 下半年에도 下向趨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우기 非OPEC産油國의 生産量增加와 國際石油會社의 在庫放出 그리고 主要消費國들의 備蓄物量 飽和로 世界石油市場은 安定勢를 견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결국 1973年에 야기된 第1次 石油波動以後 10年만에 世界石油市場은 安定局面을 回復한 것이며, 70年代 産油國에 의하여 이루어진 폭발적인 石油價格의 引上은 全世界적으로 油價의 衝擊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 石油消費減縮을 초래하여 産油國들은 石油價維持를 위한 生産量調節政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2. 世界石油市場展望

가. 1983年 展望

최근 産油國들은 産油各國의 심각한 利害對立

으로 독자적인 生産 및 價格政策을 취할 展望마저도 보이고 있었으나 이러한 現狀打開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OPEC石油相회의(1982. 12. 18~20)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희생적인 生産量調節과 1983年末까지의 油價凍結(34달러/배럴)을 再宣言하였으며 이에 따라 OPEC各國의 産油量 및 油價에 대한 政策變化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變化가 없는 한 1983年の 世界石油市場은 1982年과 비슷한 環境을 유지할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 그러나 ① OPEC國家들의 精製設備 稼動率 低下(60%以下水準) 현상 ② 主要先進國의 계속적인 石油消費 감퇴 ③ OPEC國家의 國際收支 赤字 등의 要因은 1983年度에 油價下落可能性도 排除하지 못하는 要因들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WFA(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나 DRI(Data Resources Inc.), Morgan 銀行(Morgan Guaranty Trust Company)등 石油專門研究機關들도 1983年の 世界石油市場은 需給 安定내지 供給過剩으로 인한 油價下落狀態를 계속 보일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나. 長期展望

世界石油市場의 長期展望은 不確實性下의 限定的인 展望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石油은 1980年代 以後 他에너지源보다의 消費增加率 鈍化로 말미암아 에너지全體에 대한 石油需要比重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으며 石油需要의 總量增加도 2000年代까지 微微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石油需要의 變化를 구조적으로 展望하여 보면 1990年頃에는 各國의 石油需要가 揮發油 등 中間溜分 中心型으로 輕質化할 것이다. 왜냐하면 先進國의 石油製品需要減退는 重質燃料油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重質油는 産業部門에서는 石炭과 가스로 代替되고 發電部門에서는 原子力과 石炭으로 代替되는 등 주로 構造的인 要因에 의하여 감소되고 있다.

한편 石油供給量을 展望하여 볼 때, OPEC産油量은 단기적으로는 減産政策 推進에 의하여 供給量의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 이러한 政策은 各

産油國마다의 利害關係上 長期化될 수 없기 때문에 OPEC産油量은 長期的으로는 增加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非OPEC産油國中 美國과 蘇聯의 石油供給量은 1980年代 中盤이후 減少될 展望이고 北海와 墨西哥 등에서는 1980年代를 통하여 生産量이 늘어날 豫想이다. 또한 石油供給展望을 質的인 면에서 考察하여 볼 때, 最近 産油國들의 供給 原油는 重質化, 高硫黃化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尙后로 더욱 深化될 豫想이다.

앞서 簡略하게 살펴 본 世界石油市場의 變化推移에 따라 國內 石油需給上에도 많은 与件變化가 수반되었고 또한 새로운 問題點이 露呈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章에서는 世界 石油市場의 長短期展望을 고려하여 본 80年代의 國內 石油需給安定化方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國內石油需給의 問題 및 對策

1. 石油需給의 諸問題

우리나라는 石油需給安定을 위하여 解決하기 어려운 몇가지 構造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은 非産油國에 있어서 石油需給上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原油의 自主的·安定的 確保가 最優先의 問題가 된다. 原油確保問題는 크게 3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原油의 長期安定的 供給契約問題, 原油導入先偏重化問題, 低價·低硫黃·輕質原油導入問題 등이다.

둘째, 國內 石油需給上의 脆弱點의 하나인 備蓄施設·脫黃施設 등 附帶設備의 未備點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物量不足事態에도 대처할 伸縮性이 缺如되었으며 또한 精油工業이 公害産業으로 注目받게 되었다. 이같은 附帶設備의 未備는 需給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國內 精油工業의 質的成長을 저해하여 온 主要原因인 것이다.

셋째, 國內 精油工業이 開發初期부터 外國合作企業에 의존하여 運營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技術水準의 低價가 또 하나의 構造的인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高度의

技術과 資本을 要하는 代替에너지開發 및 石油開發事業 등 石油需給安定을 위한 積極적인 方案에의 참여가 어려운 實情이다.

이와같은 構造的인 問題點 以外에도 石油需給安定을 위하여는 몇가지 當面한 問題를 해결 하여야 한다. 즉, 1981年에 湖南精油의 15萬BP SD Unit의 施設擴張이 이루어졌으나 同年以後 石油需要는 오히려 減퇴하여 精油業界의 稼動率은 大폭 低下되었다. 1982年 下半期中 同業界의 稼動率은 60%水準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精製設備는 過剩狀態인데 反하여 重質油分解施設은 具備되지 못한 實情이어서 1980年代의 製品需要의 輕質化 추세를 감안할 때 이는 需給上 當面問題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當面問題의 하나는 現行 國內石油價格體系는 國際價格構造나 價格水準 등에 比하여 大 當面 歪曲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石油製品의 國際交易上價格差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國內 石油製品 需給管理에도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

2. 石油需給安定化方案

가. 原油需給安定化方案

1980年代 이후 石油需給의 完화로 石油에 대한 長期展望이 대체로 낙관적인 面을 보여주고 있으나 中東의 政治的 軍事的 불안정성에 의한 石油供給逼迫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展望이 石油消費節約 및 代替에너지開發努力이 向後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前提條件이 악화될 경우 世界需給事情은 급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所要原油全量을 海外에서의 輸入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必要原油를 適期에 低廉한 價格으로 長期安定供給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石油需給安定化를 위한 第1의 基本命題인 것이다.

다행히 1983年까지는 世界石油市場이 安定勢를 지속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1982~1983期間을 需給安定化 基盤을 조성하는 시기로 삼고 原油導入先多邊化推進, 長

期供給契約에 의한 原油導入, 不利한 原油導入條件의 改善, 原油情報체제의 確立, 原油開發輸入의 積極推進 그리고 產油國과의 紐帶의 強化等 具體的인 原油需給安定化 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1) 原油導入先多邊化的 推進

우리나라는 第1,2次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物量事情이 어려운 때 실시하였던「物量確保先施策」의 영향으로 導入先이 극히 偏重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1981年中 原油導入交涉方案을 確定, 실시하여 民間商社의 交涉能力까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79年까지만 해도 中東4~5個國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原油導入이 1982年 현재는 對象導入國이 11個國으로 확대되어 政府가 추진해 온 原油導入先 多邊化政策이 점차 效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導入國의 數만 증가하였지 內容面에서의 多邊化는 이룩하지 못한 形편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中東產油國에의 依存度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1個國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導入國數의 多邊化는 물론 導入量의 多邊化 그리고 導入條件의 多樣化 등도 併行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政府는 導入先多邊化를 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輸送운임 및 金融費用 등을 向後로도 계속 지원하여 原油導入先 多邊化의 經濟性을 점진적으로 考慮해 나가야 할것이다. 政府의 多邊化 推進目標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6年 中東依存度를 60%까지 낮추고 導入國數를 15個國 以上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原油導入條件의 改善

石油의 流通過程에서 國際石油메이저의 영향이 점차 감소되었고 石油販賣에 있어서 產油國은 消費國과 직접 거래하려는 경향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世界石油市場이 購買者市場으로 전환

됨에 따라 原油導入去來도 일반적인 商去來에서의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時期에 우리나라는 原油導入上 既存의 불리한 契約條件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原油契約은 原油供給이 不安定한 시기에 締結된 것이기 때문에 産油國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安定된 國際石油市場과 國內需給實情을 반영하여 導入價格, 導入油種은 물론 其他契約條件을 개선하여 國內 石油製品價格自律化 등 与件變化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長期供給契約에 의한 原油導入을 우선하여야 한다. 즉 原油의 속성 및 非常時를 고려하여 精油社가 가급적 長期契約에 의하여 原油를 수입하되 Spot形式으로 구입할 수 있는 物量을 導入物量의 一定範圍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低硫黃·輕質原油 確保를 서둘러야 한다. 世界原油供給市場의 構造上 向后로는 重質油 위주의 原油供給이 불가피해 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重質油分解施設이나 脫黃施設이 未備된 우리나라로서는 低硫黃·輕質油의 原油確保契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政府는 1981년부터 서울地域에 低硫黃 燃料油供給을 시작하였고 1982년에는 京仁地域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므로 精油社가 필요한 低硫黃原油를 適期에 확보할 수 있도록 原油導入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셋째, 其他 原油代錢의 支拂條件 또는 國籍船의 使用問題 그리고 附隨의인 契約條件의 개선을 위하여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産油國과의 紐帶強化

産油國은 1970年代를 통하여 石油生産, 販賣權을 장악하고 資源民族主義를 표방하여 石油를 武器化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産油國 主要人士의 招請 및 訪問 등으로 兩國間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精油社와 民間商社를 통한 民間交流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中東産油國과의 經濟協力과 紐帶強化를 위하여 中東地域에 建設進출을 활발

히 꾀하여 왔다. 그러나 中東産油國들은 建設輸出 위주의 진출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經濟協力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長期安定的인 原油確保를 위해서는 이들 産油國과의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經濟協력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中東産油國에는 多方面에 걸쳐 相互補完性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重點을 두고 協力を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中東産油國들은 開發投資財源은 豊足한 편이나 産業構造 및 技術水準이 落后되어 있고 生産活動에 참여할 수 있는 自體人力이 絶對不足하며 石油를 除外한 原資材의 供給基盤이 脆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供給過剩이나 石油價格下落 등의 여건을 활용하여 原油導入을 他商品去來의 Bargaining Power로 이용함으로써 産油國에 처하여 商品輸入을 요구하는 등 交易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原油情報蒐集體制의 確立

급변하는 國際石油情勢下에서 産油國으로부터 長期 安定的으로 原油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廣範圍하게 石油情報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를 基礎로 適切한 原油導入對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石油專門家를 양성함은 물론 關係研究機關 또는 關係協會나 会社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수집된 情報를 분석하고 이를 곧 반영할 수 있도록 政府機關의 傘下團體의 성격이나 別途法人性格의 獨立機構設立 問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5) 原油開發의 積極推進

(1) 國內大陸棚石油開發

原油確保를 위한 적극적인 課題로서 우리나라의 大陸棚 石油開發과 이를 통한 技術 및 經營의 蓄積으로 海外의 石油를 開發輸入하는 것들을 수 있다. 大陸棚開發과 같은 石油開發事業

이란 危險度도 크고 支拂代價가 많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石油埋藏量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이 石油開發事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1980年以後 2,3,4,6 鉅區의 租鉅權을 반납 받은 우리 政府의 海底石油開發 進行上의 問題, 韓·日大陸棚 共同開發 地區를 共同開發하고 있는 日本의 政治的 또는 其他事由에 의한 生産 조작行爲 등 大陸棚開發上의 問題는 물론 原油生産 이후의 利益金分配問題나 中共의 介入問題 등 外交·政治的 側面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大陸棚 石油開發過程을 통하여 探查에서 試誰·生産에 이르는 一聯의 技術 및 經營의 畧積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2) 海外油田開發의 推進

이미 開發條件이 유리한 지역의 石油開發은 先進國들이 先占하고 있으며 資本과 技術面에서 劣勢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海外油田開發 및 開發輸入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1980年代 以後 供給過剩으로 말미암아 油田開發 事業이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現時點이 오히려 유망한 油田開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機會라고 판단된다.

특히 리비아, 알제리 등은 石油探查 및 開發에 참여하는 國家에 對하여는 原油供給을 優先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레이드 聯合(U. A. E) 이라크 등에는 많은 未開發地域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 마두라(Madura) 海域의 油田開發에 KODECO(株)에너

지가 진출하여 試誰段階에 있는데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말레이지아의 사라와크 油田에도 進出中에 있다.

나. 石油製品需給安定化方案

1) 消費構造의 改善

(1) 輕質化를 위한 最適施設投資促進

우리나라의 石油製品需要는 앞으로 輕質製品 특히 輕油를 中心으로 增加하게 되어, 이로 인해 重質製品의 供給은 過剩狀態를 나타나게 될 展望이다. 이러한 추세는 1980年代 後半以後 더욱 深化될 可能性이 높고, 이에 따른 對策樹立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需要構造變化에 對한 對應策을 미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國內製品 消費構造는 重化學工業化過程에서 병커C油를 中心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重質製品減少와 輕質製品 增加에 對하여 對應할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國內 石油製品 消費構造도 輕質油 中心으로 國際化되어 갈 전망이다. <表-1>에서 보면 國內 中輕質油製品의 消費構造는 1980年 45%로 外國의 同比重에 비하여 낮은 水準이었으나 1990년에는 54%로 上昇하여 自由世界의 平均比率인 59% 수준에 접근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때, 供給過剩이 되는 重質油製品을 해소하고 부족한 輕質油製品을 供給하는 가장 중요한 方法은 重質油分解施設의 導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精製能力이 過剩狀態에

(表-1) 石油類 消費構造 展望

	1980				1985				1990			
	輕質油	中間溜分	重質油	其他	輕質油	中間溜分	重質油	其他	輕質油	中間溜分	重質油	其他
유럽5개국	26	37	27	10	28	38	23	11	30	38	19	13
美 國	43	24	15	18	44	27	11	18	41	29	10	20
自由世界	26	31	24	19	26	32	24	19	26	33	22	19
韓 國	15	30	52	3	16	36	39	9	16	38	34	12

資料: 大韓石油協會 「石油協會報」, 再引用

註: 유럽 5 個國은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임.

있고 이러한 상태는 1990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分解施設의 新規導入은 施設過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制約要因을 考慮할 때 우리나라가 採擷하여야 할 分解施設은 가능한 限 병커C油를 分해하여 中輕質油製品을 생산할 수 있는 工程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分解施設의 설치에는 莫大한 資金이 소 요되므로 1個會社가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 보 다는 国内 精油會社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 치하는 것이 規模의 經濟를 享有할 수 있을 것 이다.

(2) 重質油分解施設建設

極東石油은 国内精油業체中에서 최초로 内外 資 242百万달러를 投入하여 34千BPSD 規模의 重質油分解施設을 1985年末에 준공하여 1986年 부터 가동시킬 계획이다. 이 시설이 稼動되면 멕시코産의 低廉한 重質原油를 사용할 수 있어 年間 99百万달러의 原油導入費用과 63百万배럴 의 輕質油製品의 輸入을 대체하여 總 166百万달 러의 外貨節減效果가 期待되고 있다. 이 分解設 施建設은 1986年以後 惹起될 것으로 보이는 油 種間 需給不均衡解消에 크게 寄與할 전망이다.

2) 脫石油政策의 伸縮의 推進

世界에너지 賦存與件의 制約 및 低價의 에너 지 供給을 考慮할 때 長期的으로 脫石油政策의 추진은 不可避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政府 에서도 脫石油電源開發計劃을 세우고 有煙炭發電, 原子力發電, LNG發電의 比重을 점차 높여 갈 방침이며 産業部門의 燃料轉換도 併行, 추진 하여 總에너지中 石油依存度를 大幅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脫石油政策은 莫大한 投資費用(新規 投資, 施設改替等)을 隨伴하고 있기 때문에 工 產品價格의 引上要因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병커C油와 같은 重質油를 대체하는 것 이어서 同政策의 強力한 推進은 重質油의 供給 過剩現象을 加速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앞으로 惹起될 石油製品需給不均衡問題는 單

純한 国内需要行態의 自律的變化에 의한 것이라 기 보다는 脫石油政策이라는 政府의 政策意志가 크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脫石油政策의 推 進은 石油需給은 물론 總에너지綜合需給政策과 連동시키어 慎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脫石油政策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될 지 모르는 精油施設의 遊休化를 예방하고 代替 에너지政策의 경제적인 妥當性 및 代替時期 등 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綜合 檢討하여 決定하여 야 할 것이다. 政府의 第5次5個年計劃의 發電 量의 에너지源別 構成比를 보면 石油의 比重은 1981年 80.1%에서 1986년에는 24.8%로 감소되 어 무려 55.3%포인트나 그 比重이 縮小될 계획 이고 이를 原子力과 石炭 그리고 水力發電이 代 替할 전망이다. (表-2 參照)

(表-2) 發電源의 構成比展望

(單位: %)

	1981(実績)	1986(計劃)
石 油	80.1	24.8
石 炭	6.3	30.7
水 力	6.5	4.5
原 子 力	7.2	40.0
L N G	-	延期

資料: 動力資源部

註: 構成比는 發電量基準임.

3) 價格構造의 改善

石油類價格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需要와 供 給에 의하여 決定되나 장기적으로는 供給에 의 하여만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石 油類價格의 決定要因은 世界石油市場의 價格機 能에 의해서라기 보다 OPEC 등 産油國이나 石 油消費國들의 石油政策 등 人爲的인 政策變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国内 油價自律化實現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油價制度 를 市場經濟原理에 맞는 競争促進制度로 전환 하는 한편 油價構造上 歪曲되어 있는 부분을 조 정하여 油價構造의 國際化를 도모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原油 및 製品의 導入, 價格 決定, 流通部門 등에 對한 政府의 介入을 최소

화하고 石油需給 및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한 最小限의 補完裝置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輕質油 等 Upgrading에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製品間 價格體系를 형성해야 하고 LPG, 나프타 등 非正常價格을 환원해야 하며 特別消費稅, 安定基金, 備蓄基金 등을 縮小 또는 廢止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石油備蓄의 積極推進

우리나라는 現在의 産業構造上 石油를 適期에 確保하지 못할 경우 輸出은 물론 內需供給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만큼 그 依存도가 深化되어 있다. 이것은 世界的인 추세여서 1973年第1次 石油波動 이후 世界各國은 尚存한 石油危機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石油備蓄에 관한 法令 등을 제정하여 石油備蓄制度를 運營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石油備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民間部門의 備蓄水準을 제고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감은 물론, 政府가 適正水準의 物量을 備蓄토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石油備蓄을 1986년까지는 최소한 90日分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고 民間部門에서 30日分, 政府部門에서 60日分の 物量을 備蓄할 계획이다. 政府는 備蓄推進을 위한 不足資金調達을 위하여 1981. 11. 油價引上時, 從前까지 배럴당 1달러씩 徵收하던 備蓄基金을 1.5달러로 인상하였다.

현재는 石油需給上의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지만 向后的 國內外石油需給情勢는 價格과 物量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石油의 自力供給能力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需給上의 完충制度로서 石油備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代替에너지開發의 持續的 強化

장기적인 觀點에서 石油需給의 安定을 期하는 方案은 代替에너지의 開發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供給에너지源을 多樣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年代 이후 國內外 石油需給의 緩和를 배경으로 代替에너지 開發意慾과 同部門에 처한

투자욕이 현저하게 감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代替에너지開發이 계속 부진할 경우 石油價格의 引上 및 物量調節事態는 分明히 到來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石油代替에너지인 天然가스, 石炭, 原子力등은 물론 新에너지인 太陽熱, 風力, 小水力, 바이오메스, 波力, 地熱 등 代替에너지開發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關係法規의 整備등 開發體系를 整備強化하고 先進國研究機關과의 共同開發促進이나 民間企業의 技術導入을 지원하는등 技術開發協力體制를 強化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의 代替는 상당한 Lead Time(5~10年)을 要하는 것이므로 代替에너지政策은 中長期的으로 樹立되어야 하며 이의 積極的인 開發을 위하여 定期的으로 研究發表會나 報告會의 開催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精油施設投資에 대한 金融支援強化

石油製品需給安定화를 위하여 앞으로 精油工業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은 多分野의 施設投資 또는 改替를 要하고 있다. 그러나 消費構造變化에 따른 重質油分解施設이나 脫石油政策 추진으로 인한 諸投資, 社會問題로 인한 脫黃施設, 그리고 備蓄施設, 代替에너지開發投資 등은 施設投資의 패턴이 에너지需給 전체적인 次元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같은 施設規模는 個別企業이 投資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大規模 資金이 所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國民投資基金 및 韓國産業銀行 등을 통한 國家的 次元의 金融支援이 요망되고 있다.

(本原稿는 當行刊「世界石油市場展望과 石油需給安定化方案」(1982. 12)을 要約한 것임).